

문화의 향기가 스며나는 시대



박선호

부산 동양정판사대표

인쇄물은 역사의 산 증인이요, 고증자료의 핵심 증거가 된다. 인쇄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의 필사본이나 그림도 마찬가지이다.

보관상태와 탈색, 자형의 마모형태, 지질의 성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작 시기를 추정해 낸다.

조선 정조 때의 문장이며 실학의 대가인 연암 박지원의 대표적 저서인 열하일기 한글 필사본이 최근 처음으로 발굴되었다. 활자로 찍지 않고 글로 베긴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열하일기는 박지원 일행이 청나라 건륭제의 칠순 연을 축하하기 위하여 열하지방을 다녀온 것을 기록한 여행기이다.

이번에 학계에 알려진 이 책은 가로 18, 세로 27cm 크기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궁체로 쓰였으며, 학자들은 “국어문학에서 한글 사용이 확장 되어가는 일면을 엿보게 하는 귀중한 문헌”이라고 평했다. ‘열하일기’ 한글본은 현재 명지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다.

역사의 뒀안길에 묻혀 있던 소중한 문헌이나 사료가 간단없이 햇빛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옛 문화 진흥에 큰 도움이 된다. 문화는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한다.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몇 백년, 몇 천년 동안이나 입고 있던 ‘문화의 이끼’를 벗겨 내는 것이 후손들이 할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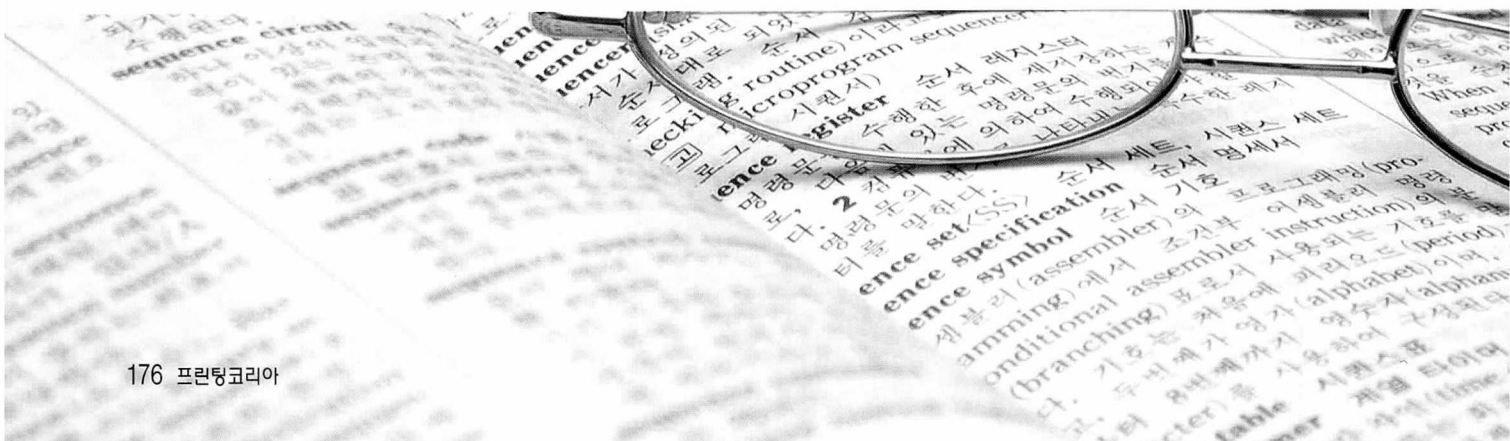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금년 초에 발간된 서울대 신용하 교수(사회학)의 저서 ‘독도 영유권 자료의 탐구’(독도연구보전협회) 등은 눈여겨볼 만하다.

‘학계의 독도지기’로 알려진 신 교수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문서와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일본이 1952년 이래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계속 주장해온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사실, 한 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자료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옛날의 인쇄물이나 문서, 지도 등은 아주 중요한 증거물이 된다. 특히 1946년 일본제국 해체작업을 하던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지령 677호를 통해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한국에 반환할 것을 명시한 문서 같은 것은 일본의 억지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아닐 수 없다.

■ 인쇄물은 역사의 스크린

조선 숙종 때의 어민 안용복은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독도 포함)를 자주 침범하자 그들을 울릉도로부터 축출하고, 일본에까지 가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시켜 준 역사적인 일도 있다. 그는 진정한 ‘독도 지킴이’였던 것이다.





그런데 역사 왜곡 교과서문제가 한층 비등하던 작년 10월 15일,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서대문 독립공원을 찾았을 때 방명록에 서명하면서 사무사란 글을 남겼다. '사무사'란 공자가 "시경 305편을 한마디로 사무사"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마음에 나쁜 이를 생각함이 없다는 뜻이다.

자국에서는 우리 나라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독도를 빼앗아 가려는 침탈의 술수를 쓰면서, 밖에 나와서는 '사무사의 탈'을 쓰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헐크와 비슷하다. '사무사'가 '살무사'가 아니기 다행이다.

서두에서 밝힌 '열하일기'는 1780년대 청나라의 문물과 제도 등을 기록한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기념비적 서적 중의 하나로 꼽히며, 박지원은 '범고창신'을 설파하였다. 즉,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말이다.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밝힌 신용하 교수의 저서도 메이지시대 문서인 '죽도일건'과 '죽도고증' 등의 자료를 실었다. 이처럼 인쇄물이나 문서, 그림 등은 한 시대를 굿는 획이 되는 동시에 그 시대사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스크린이 되기도 한다. 그러기에 어느 시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내용이 든 인쇄물 제작은 소홀함이 없이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 훗날 어떤 사건을 구별하고 특정 짓는 중요한 징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약간 궤를 달리하지만 불교학자 전재성(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씨가 13년 집념에 의해 부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았던 대화를 기록한 남방불교의 '팔리어 대장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출간한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다.

팔리어 대장경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가장 먼저 문자로 기록된 불교 경전인데, 번역본 '쌍웃따 니까야' (상응아함)는 한글 전용을 채택하고 6,000여 개의 주석을 붙임으로써 전문가 뿐 아니라 불교 신자들과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 '인류문명의 기록' 사명감 가져야

역사의 발자취를 찾는 일은 비단 문헌이나 사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기념비를 세운다거나 전시관을 마련하는 일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인 유길준의 이름을 딴 전시실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근처 세임럼 시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에서 문을 열게 되었다. 120년 만에 조선 청년 '개화의 꿈'이 영글게 된 것이다. 한국인의 이름을 붙인 전시실이 외국의 박물관에서 개관하기는 처음이다.

개화사상가인 유길준은 1883년 최초의 대미 외교 사절로 미국에 건너갔다가 당시 모스 장관과 친하게 되었다. 그 인연으로 유길준은 갑신정변(1884년 12월)때 귀국하면서 한복자 모자, 부채, 명함 등을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에 기증했다. 그후 박물관에서는 한국 관련 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이제는 '유길준 전시실'이 내년에 개관하게 되기에까지 이르렀다.

'서유견문' (1895년 출간)의 저서를 남기기도 한 유길준은 김옥균과의 친분관계로 체포되어 1892년까지 연금 당했는데, 그때 '서유견문'을 집필한 것이다.

아무튼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하루하루가 역사의 현장이요, 그 현장에서 일하는 인쇄인이나 출판인은 하나의 기록을 남기는 중계역할 자이기도 하다.

문화의 향기가 스며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큰 복이다. 오늘의 작은 인쇄물 한 장이 먼 훗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지 누가 알겠는가. ☺